

아주대학교

제3기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인문학,
혁신을 통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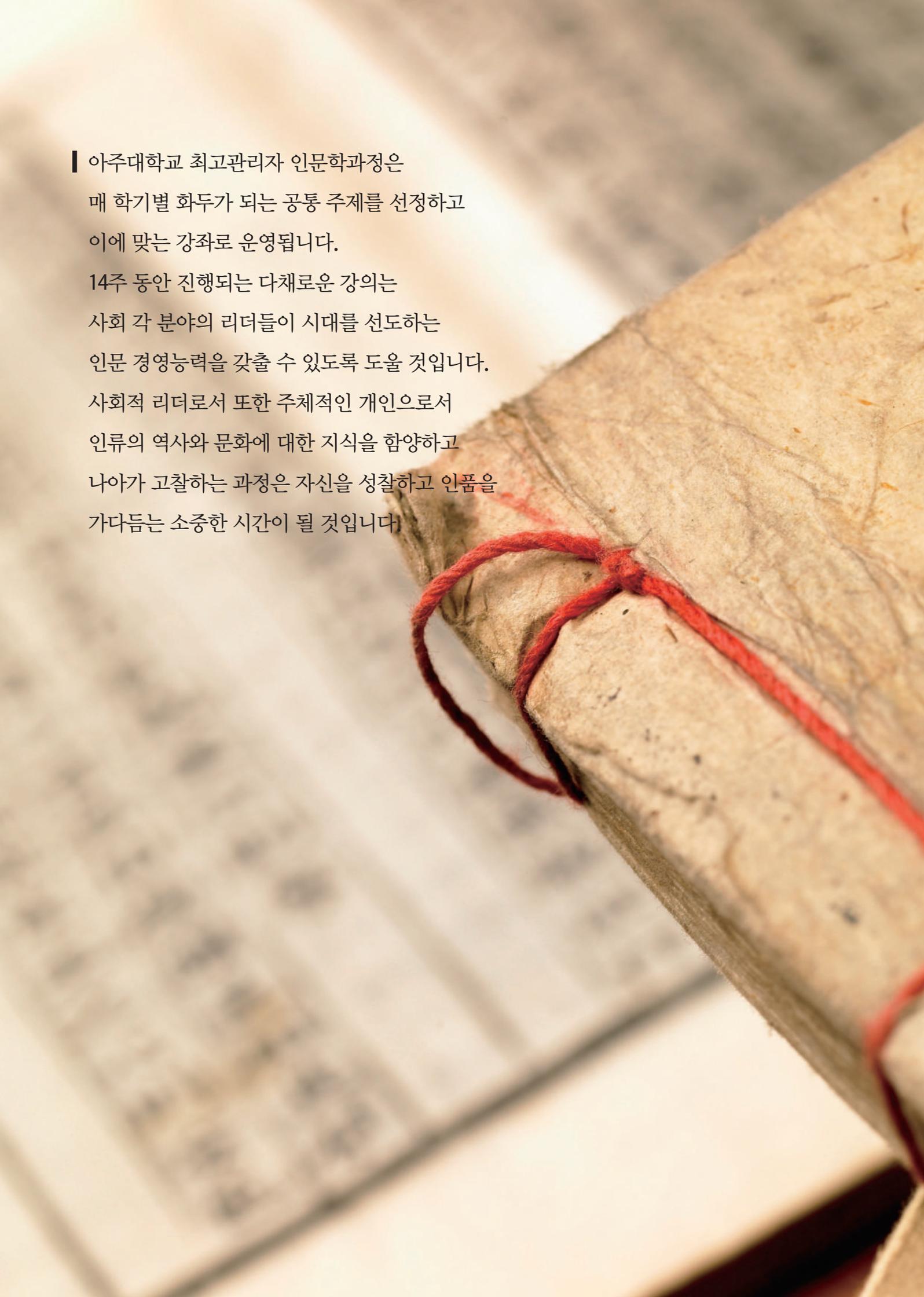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혁신을 위한 통찰의 인문학'은
나를 돌아보는 공부이고, 나와 남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접어두었던 인간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함께 향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의 휴식이나 외출이 아니고,
계속 일궈나갈 혁신적 통찰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 인문대학
AJOU UNIVERSITY | College of Humanities

평생교육원
Center for Lifelong Learning



■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매 학기별 화두가 되는 공통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강좌로 운영됩니다.
14주 동안 진행되는 다채로운 강의는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인문 경영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회적 리더로서 또한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고찰하는 과정은 자신을 성찰하고 인품을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혁신을 위한

통찰의 인문학’에서는

인문학의 다양한 주제와 현상,

인물들을 혁신적 통찰력과

연관지어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강의 테마가

혁신과 통찰, 변화와 선택의 영역으로 연결됩니다.

관념이나 이론적 사유가 아닌

실제적인 혁신과 통찰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과 사회적 혁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또한 강의시간 외에 교수와 수강생이

함께 소통하는 ‘어울림시간’도

주기적으로 운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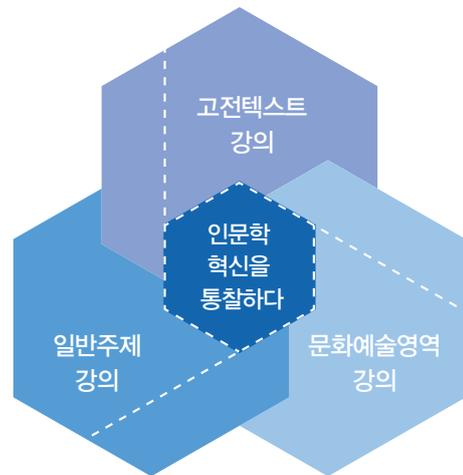
공통 테마가 있는 강의

학기별로 당대의 화두를 공통주제로 선정하여 강의를 운영한다. 14주 개별 주제들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강의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고 집중적인 교육효과를 도모한다. 이번 학기 강의의 공통주제는 ‘혁신을 위한 통찰의 인문학’으로 인문학의 다양한 주제와 현상, 인물들을 혁신적 통찰력과 연관지어 고찰한다.

한국의 전통과 지역문화 학습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는 한국의 보편적 전통과 지역사회의 특수한 전통을 함께 이해하기 위함이다. 전통문화 학습과 체험은 문화기행형식으로 매 학기 진행되고, 경기도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탐색도 매 학기 강의에 포함된다. 이번 학기에는 경북 안동지역을 찾아 한국의 향촌공동체 문화를 경험하고, 경기도의 문화유산인 실학사상을 정약용의 저술을 통해 배우고 익힌다.

3개 계열의 다양한 강의 구성



전체 강의는 3개 계열, 즉 인문고전을 읽고 탐구하는 인문학 고전텍스트 강의, 흥미롭고 시의성 있는 특정 테마를 다루는 인문학 일반주제강의, 문화와 예술분야의 감성과 전문지식을 익히는 문화예술영역강의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주체적 학습과 테마별 심화교육, 문화적 감성교육의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나를 찾는 고전텍스트 공부

동서양의 대표적 고전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전을 직접 읽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고 논의한다. 인류의 보편적 지혜가 담긴 고전을 학습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반성적인 인문학 공부를 실천한다.

인문 경영능력 함양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인간과 문화에 대한 원천 지식을 함양하고 개인과 인간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킴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인간적 감성과 창의적 상상력을 고취하며 사회적 리더로서의 품격과 역량을 고양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성찰과 자기계발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과정을 통해 모든 수강생들은 최고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인문경영능력을 갖추게 된다.

| 인문학과 소통하는 사회적 리더들을 초대합니다



인문학 아카데미
원장 김봉철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성을 탐구하고 인간적 가치를 모색하는 기본 학문입니다. 인간 사회가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더라도 인간 사회의 중심은 결국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고 인간의 사유와 행동 양태를 이해한다면, 격변의 시대를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근대 물질문명의 확산 속에서 실용적 효율성과 성과주의가 중시되는 반면 인간적 가치는 경시되어 왔습니다. 대체로 인간은 조직사회의 기계적인 요소, 상품의 소비자, 제도화된 편견의 대상, 익명의 개인으로 취급되기 일쑤였고, 보편적인 인간성과 주관적인 개성은 무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외형에 치중한 사회발전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사회동력이 필요한 요즘,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과 성찰, 나와 타자에 대한 보편적인 배려가 중시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곧 인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인문학과 사회적 리더 간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됐습니다. 또한 인간과 문화에 대한 원천지식과 통찰력을 학습하고 사회적 리더로서의 품격과 개인적인 계발역량을 증진시킨다는 목표 하에 운영됩니다.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강의는 3개의 계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고전텍스트강의, 인문학 일반주제강의, 문화예술영역강의입니다. 인문학 고전텍스트강의는 인류의 원천지식으로서의 고전을 읽고 배우는 인문적 기초학습이고, 인문학 일반주제강의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분야의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습이며, 문화예술영역강의는 문화와 예술분야의 감성과 전문지식을 익히는 교양학습입니다.

한편 14주 강의의 단편성을 극복하고 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 학기 공통주제가 선정됩니다. 이번 학기 강의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화두인 혁신과 통찰의 문제를 부각시켜, ‘혁신을 위한 통찰의 인문학’이라는 공통주제 하에 운영됩니다. 즉 인문학의 다양한 주제와 현상, 인물들을 혁신적 통찰력과 연관지어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강의 테마가 혁신과 통찰, 변화와 선택의 영역으로 연결됩니다. 관념이나 이론적 사유가 아닌 실제적인 혁신과 통찰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과 사회적 혁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고전텍스트강의 역시 ‘고전으로 읽는 통찰’을 주제 삼아 고전의 현재 혹은 미래적 의미를 분석하고 토의할 것입니다.

인문학은 주체적이고 반성적인 학습입니다. 주체적인 자기성찰과 끊임없는 반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인문학 본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나를 돌아보는 공부이고, 나와 남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접어두셨던 인간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함께 향유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의 휴식이나 외출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일궈나갈 혁신적 통찰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럼, 기본에 충실한 강의,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강의, 창조와 새로움을 생각하는 강의, 자기성찰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강의에 우리 시대 사회적 리더들의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유익함과 즐거움이 어우러진 인문학의 향연이 되도록 정성껏 준비했으니, 이 풍성한 향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큰 성원과 관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강좌	날짜	강의주제	강사
제1강	3/9(월)	입학식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고문)
		갈림길의 다른 선택 :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제2강	3/16(월)	과학혁명과 인문학	김유신(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제3강	3/23(월)	메이지 유신 : 전통과 혁신의 공존	김종식(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4강 (합동강의)	3/30(월)	「사기」에서 배우는 혁신과 통찰	김원중(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제5강	4/6(월)	고전으로 읽는 통찰1 : 장자, 「장자」	신정근(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교수)
제6강	4/11(토) ~ 4/12(일)	문화기행(경북 안동지역) : 향촌공동체와 인문학정신	권기중(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제7강	4/20(월)	통찰의 대전환: 프로이트와 라캉의 인간 분석	정경훈(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8강	4/27(월)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 로댕의 예술과 혁신성	박영택(경기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제9강	5/4(월)	말하는 만큼 존재한다 : 생각의 구조와 언어의 혁신	박만규(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제10강	5/11(월)	고전으로 읽는 통찰2 : 괴테, 「젊은 베르터의 슬픔」	오순희(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제11강 (합동강의)	5/18(월)	문화를 바꾼 한국음악의 변혁가들	김영운(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제12강	6/1(월)	춘향전 : 변화와 인습의 충돌	조광국(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3강	6/8(월)	고전으로 읽는 통찰3 : 정약용, 「목민심서」	조성을(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14강	6/15(월)	연극의 혁신 : 드라마의 탄생과 인간 이해	서정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6/22(월)	수료식	



제1강

갈림길의 다른 선택: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는 여러 모로 대비된다. 한 사람은 왕의 섭정으로 국정을 재단하였고 한 사람은 왕비로 국정을 농단하였다. 두 사람은 19세기 끝 무렵, 정치적 혼란기에 번갈아 권력을 틀어쥐고서 많은 분쟁과 파란을 불러왔다. 임오군란과 동학 농민전쟁을 거치면서 권력 유지를 위해 서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배척하는 정치적 술수를 부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두 사람의 갈등과 대립은 국가 주권의 상실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 강의에서는 두 사람의 상반된 선택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 공과를 따져 보기로 한다.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고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고문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자문위원
-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좌교수
- 저서 :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국사 이야기」(22권), 「인물로 읽는 한국사」(10권) 등
- 수상이력 : 단재상 학술부문(2001), 임창순(정명) 학술상(2006)

제2강

과학혁명과 인문학

서기 12-3세기경만 해도 중국의 과학기술이 서구보다 앞섰지만, 17세기가 지나면서 서구의 과학기술이 중국을 압도한다. 조셉 니담은 그 원인을 서구의 과학혁명에서 찾고 중국에서는 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탐구했다. 이 강의에서는 서구의 과학혁명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동양 삼국의 과학의 전파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과학혁명에서 과학 발전이 과학 내적 논리에 의해서만 이뤄지지 않고 당대의 철학, 신학, 형이상학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일본, 중국, 한국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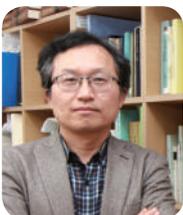
김유신(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 미국 코넬대학교 철학박사(과학철학)
-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 전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 연구분야 : 과학철학과 응용, 양자역학 철학, 인공지능,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 저서 : 「양자역학의 역사와 철학」, 「과학철학」(공저), 「과학적 지식과 인간다운 삶」(공저) 등
- 수상이력 : 한국 전자공학회 학술상(2005)

제3강

메이지 유신: 전통과 혁신의 공존

새로움과 혁신은 언제나 과거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메이지 유신은 에도시대와 근대를 가르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것은 에도시대와의 단절과 근대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연속적이기도 하다. 강의의 핵심은 메이지 유신을 연속과 단절의 중간점이며,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의 역사적 성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 전통과 혁신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김종식(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일본 동경대학교 일본사학과 박사
- 전 일본학회 산하 일본역사문화학회 회장
- 연구분야 : 일본 근현대사
- 저서 : 「1920년대 일본의 정당정치-성립과 쇠퇴의 논리」, 「근대일본 청년상의 구축」, 「일본우익의 어제와 오늘」(공저)

제4강

「사기」에서 배우는 혁신과 통찰

사마천의 「사기」는 한마디로 혁신적 사고를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무, 오기, 양저, 상앙, 이사(李斯), 한신 등은 시대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꾼 혁신적 전략의 소유자요, 통찰력의 소유자들이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비주류에서 주류로 진입한 자들은 거듭된 치욕의 연속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때로는 여유롭게 때로는 비장하게 시대에 맞서 정면 승부를 던진 인물들이었다. 2000여 년 전에 사마천에 의해 복원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늘날에 거듭 복원된다.



김원중(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중문과 박사(중국고전문학) • 현 한국중국문화학회 부회장
- 연구분야: 중국 고전문학
- 저서: 「중국문학이론의 세계」, 「중국문화사」 등
- 역서: 「사기」(완역), 「정사 삼국지」, 「정관정요」, 「당시」 등

제5강

고전으로 읽는 통찰1: 장자, 「장자」

장자는 소요유에 보이는 변신을 통해 자유를 찾고자 했다. 이것은 새로운 권리와 의무의 체계를 부여하려는 시대에 대응하는 장자의 전략이었다. 장자는 앉아서 달리는 '좌치'에서 삶의 전도된 가치를 잊어버리는 '좌망'을 제안하고 있다. 장자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그에 따른 고통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신정근(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
- 유교문화연구소 소장
- KBS 라디오 시사고전 진행, EBS 인문학 특강
- 연구분야: 동양철학
- 저서: 「맹자와 장자, 희망을 세우고 변신을 꿈꾸다」, 「공자와 손자, 역사를 만들고 시대에 답하다」, 「사람다움의 발견」, 「철학사의 전환」,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등

제6강

문화기행(경북 안동지역): 향촌공동체와 인문학정신

현재 세계 자본주의 사회는 지나친 이기주의, 소득의 양극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는 전통사회의 공동체정신을 21세기에 재현하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향촌사회에서는 서로 돕는 상호부조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공동체조직이 마을마다 형성되어 있었다. 향약, 두레 등의 공동체조직이 그것이다. 안동 문화기행을 통해 조선시대의 향촌사회의 공동체정신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권기중(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 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 연구분야: 조선시대사
- 저서: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서울財政史」(공저), 「단성호적대장연구」(공저) 등

제7강

통찰의 대전환: 프로이트와 라캉의 인간 분석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서구사상사의 오랜 이성(reason) 중심주의 전통을 무의식과 리비도의 발견으로 깨뜨리고 인간 이해의 새 길을 열었다. 프로이트의 통찰력은 미술, 문학, 역사학, 철학, 영화, 사회학, 경영학, 정치학, 심리학 등 현대학문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라캉은 언어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혁신시켰다. 인간에 대한 프로이트와 라캉의 통찰을 배우면서 우리 자신, 가족,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음미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할 것이다.



정경훈(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미국 버팔로 뉴욕주립대학교 박사(영문학)
-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부회장
- 연구분야 : 비평이론(정신분석학, 미학 등), 영화, 문화비평, 미국시
- 논문 : 「타자에게 열리는 주체 : 영화<시>와 <피에타> 그리고 철학담론에 나타난 윤리감성 연구」, 「외모문화와 시대욕망: 라캉의 <욕망의 그래프>와 외모욕망에 대한 정신분석」 등

제8강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로댕의 예술과 혁신성

프랑스의 근대 조각가 로댕의 작품세계를 통해 그의 조각이 서구 전통조각과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조각을 추구해온 과정을 살펴본다. 서구미술사에서 조각은 인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일이자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하면서 신화와 종교, 정치에 종속되어 있었다. 반면 로댕은 그러한 전통을 회의하면서 근대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조각을 이해한 최초의 조각가였다. 이번 강의는 서구전통조각과 다른 로댕 조각의 의미와 중요작품,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서구현대조각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강의다. 이를 통해 로댕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유 등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박영택(경기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 전 금호미술관큐레이터, 아시아프전시총감독
- 연구분야 : 한국 근현대미술사와 미술평론
- 저서 : 「예술가로 산다는 것」, 「식물성의 사유」,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도」, 「애도하는 미술」 등

제9강

말하는 만큼 존재한다: 생각의 구조와 언어의 혁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가? 이같은 물음에 대해 현대 인지과학의 혁명적 연구 성과는 사고와 언어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철저하게 무너뜨린다. 이 강의에서 우리의 생각은 무의식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언어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해의 열쇠는 생각을 할 때 형성되는 직관적인 프레임과 이를 결정하는 언어에 있다. 요컨대 상대의 프레임을 활성화시키는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으며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박만규(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 전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언어학 및 번역학과 초빙연구원
- 연구분야 : 인지언어학, 언어공학, 외국어교육
- 논문: 「감정명사 범주의 설정을 위한 의미통사론」, 「La structure des locutions adpositives locatives en francais et en coreen」 등

제10강

고전으로 읽는 통찰2: 괴테, 「젊은 베르터의 슬픔」

「젊은 베르터의 슬픔」은 무명의 청년 작가 괴테를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비약하게 만든 소설이다. 유럽 전역에 걸쳐 베스트셀러였으며, '베르테르 효과'라는 개념이 생겨난 원인이기도 하다. 본 강의는 이 소설의 어떤 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괴테의 삶과 그의 시대를 살펴 보면서 작품과 시대사와의 연관성을 찾아본다. 그리고 주인공 베르터와 로테의 특징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당대 독자들의 감성을 흔들었는지 추론해본다. 끝으로 이 소설이 우리 시대의 독자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토론하게 될 것이다.



오순희(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교 대학원 박사(독문학)
- 전 한국카프카학회 회장
- 연구분야 : 괴테 문학, 고전주의, 카프카 문학
- 역서 : 「친화력」, 「에로스의 탄생」 등
- 논문 : 「예술과 권력에 관한 근대 서구의 담론 연구: 괴테와 부르크하르트를 중심으로」 등

제11강

문화를 바꾼 한국음악의 변혁가들

우리 음악문화의 역사 속에서, 문화의 흐름을 바꾸어 향후 새로운 음악문화의 토대를 다진 인물과 그에 의한 변화의 과정 및 그 배경에 이르기까지의 전개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세계를 무대로 그 다양함을 전파하고 있는 한류문화의 토대와 배경을 보다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음악문화의 변화를 주도한 인물의 감성과 생각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문화적 통찰력을 반추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 전통음악이 지니고 있는 음악문화적 특징과 각 장르의 다양한 내용 및 고유한 표현력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고자 한다.



김영운(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고전시가)
- 한국국악학회 부이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연구분야 : 고악보 기보법, 향토민요 음조직, 한국의 낭송조 음악 등
- 저서 : 「가곡 연창형식의 역사적 전개」, 「정재무도홀기」, 「경기민요」, 「피리정악 및 대취타」, 「가곡」 등
- 수상이력 : 관재국악상(2008), 난계악학대상(2009)

제12강

춘향전: 변화와 인습의 충돌

한국의 고전 <춘향전>의 작품적 가치를 “변화와 인습의 충돌” 차원에서 찾아본다. 기녀는 조선시대에 특수 천민 계층으로서 성적으로는 여성, 신분적으로는 천민이라는 이중적 질곡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은 그만큼 뜨거운 존재였다. 특히 <춘향전>에서는 그러한 기녀의 열망을 잘 형상화했다. 양반들에게 풍류와 향락의 대상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한 여성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남성(이도령)과 사랑하기를 지향하는 춘향은, 개인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조선후기의 변화와 인습의 충돌 속에서 우뚝 솟아나는 캐릭터로 부각된다.



조광국(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 진단학회 연구이사, 한국고소설학회 연구이사 등
- 연구분야: 역사영웅소설, 기녀설화, 기녀등장소설, 대하소설, TV 드라마
- 저서: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한국 문화와 기녀」, 「기녀 스캔들 메이커」, 「TV 흥드라마의 세계」 등

제13강

고전으로 읽는 통찰3: 정약용, 「목민심서」

이 강의에서는 정약용의 생애와 저술, 학문적 위치를 살펴보고 그의 1표2서의 개혁사상을 알아본다. 「목민심서」는 조선시대의 고전적 가치뿐 아니라 현대의 기업경영을 위한 지혜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목민심서」를 통해 21세기 한국사회와 실학적 경영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조성열(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 연구분야: 조선후기 사상사(실학과 성리학) 및 사학사
- 저서: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제14강

연극의 혁신: 드라마의 탄생과 인간 이해

빅토르 위고는 1830년 연극『에르나니』로써 고전주의 희곡을 타파하고 낭만주의 연극의 승리를 쟁취한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연극은 인간의 이중성 중 고전주의 시대에 무시되었던 인간의 부정적 측면, 즉 그로테스크한 면을 숭고한 면과 병용하여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에르나니는 그 결과물이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위고의 연극적 혁신과 그 성공을 18세기부터 발달한 전자기학, 생리학, 그리스 신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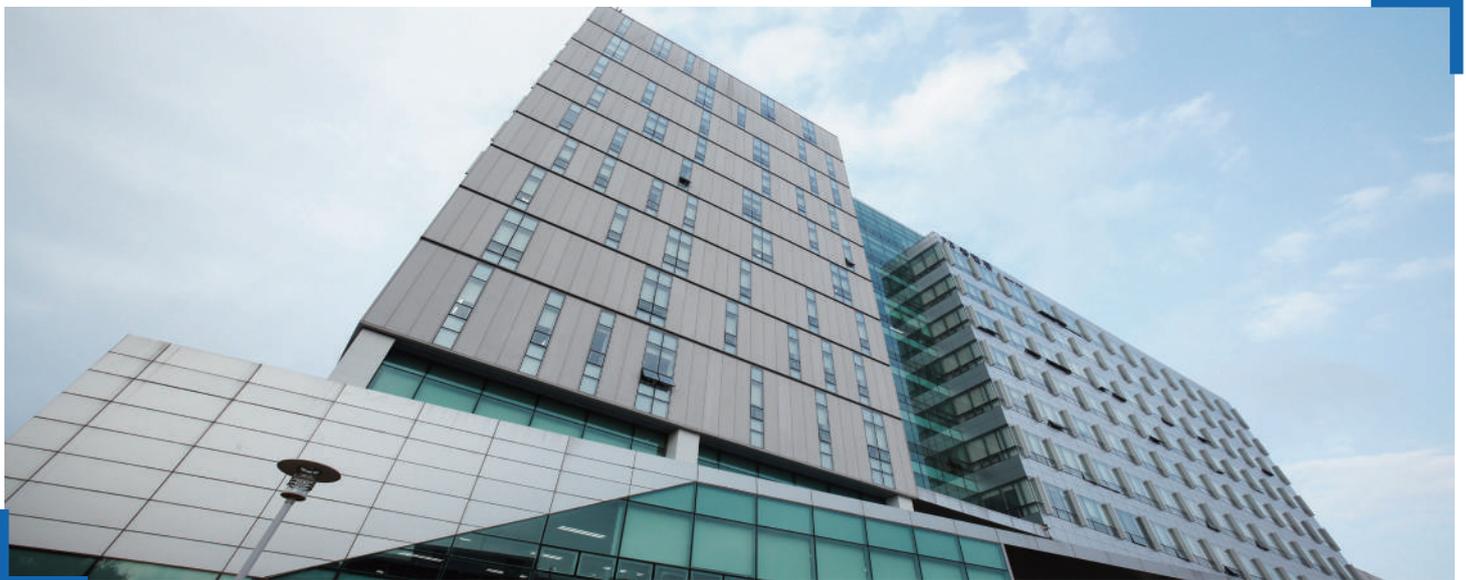


서정기(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 문학박사
- 연구분야: 프랑스 낭만주의, 인류학적 상상력
- 저서: 「신화와 상상력」



교육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2015년 3월 9일 ~ 6월 22일 • 강의장소 : 아주대학교 종합관 1003호 • 강의일 : 매주 월요일(14주 강의) ※ 문화기행 : 4월 11일(토) ~ 4월 12일(일) 1박2일 • 강의시간 : 19:00-22:00(3시간) • 주차는 교내 주차장 이용(무료주차)
모집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명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벤처 기업인 • 행정, 입법, 사법부 등 정부 인사 및 책임자 • 금융, 문화예술, 법조, 언론, 의료, 체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 : 3,000,000원(교재 및 문화기행 경비 포함) • 입금계좌 :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632-15-000986(예금주: 아주대학교)
장학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단체에서 3인 이상 등록 시 수강료 10% 감면
원서교부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월 19일(월) ~ 2월 27일(금)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명함판 사진(4x5 size, 컬러사진, 원서부착용 포함) 2매 / 재직증명서(혹은 경력증명서) 1부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접수 :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방문접수 :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캠퍼스플라자 301호) • 인터넷접수 : 지원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원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limkh227@ajou.ac.kr) 발송 ※ 홈페이지(http://cll.ajou.ac.kr) 접속→게시판(공지사항)→입학지원서 다운로드(첨부 서류는 우편발송)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통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031-219-1565, 3583 • 홈페이지 : http://cll.ajou.ac.kr / 팩스: 031-219-1566





아주대학교 | 인문대학 | 평생교육원
 AJOU UNIVERSITY | College of Humanities | Center for Lifelong Learnin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 031-219-1565, 3583 f. 031-219-1566